DBpia

『보살계본종요초』의 문헌적 의의와 신라 太賢에 대한 인식

Bosatsukaihonshuyo-sho"s philological significance and recognition of Taehyn in Shilla

저자 (Authors)
김천학
Kim, Cheon-hak

출처 (Source)
신라문화 55, 2020.2, 103-125 (23 pages)
THE JOURNAL OF THE RESEARCH INSTITUTE FOR SILLA CULTURE 55, 2020.2, 103-125 (23 pages)

발행처 (Publisher)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The Center of Research for Silla Culture Dongguk University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9311594

APA Style
김천학 (2020). 『보살계본종요초』의 문헌적 의의와 신라 太賢에 대한 인식. 신라문화, 55, 103-125.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25.137.52.***
2020/07/01 13:46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https://doi.org/10.37280/JRISC.2020.02.55.103

『보살계본종요초』의 문헌적 의의와 신라 太賢에 대한 인식

김 천 학*

<目 次>

Ⅰ. 머리말
Ⅱ. 『보살계본종요초(菩薩戒本宗要抄)』의 문헌적 의의
Ⅲ. 『보살계본종요초(菩薩戒本宗要抄)』의 태현 인식
Ⅳ. 맺음말

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한국승려에 대한 주석서가 중국과 일본에서 다수 만들어졌다. 그 가운데 주석서가 가장 많이 만들어진 것은 신라찬술설이 주장되지만 논쟁이 되고있는 『석마하연론』의 주석서일 것이다. 이것을 제외하면 태현(太賢)의 저술에 대한 주석서가 가장 많다. 태현의 저술 가운데, 『광석본모송(廣釋本母頌)』, 『보살계본종요(菩薩戒本宗要)』, 『범망경고적기(梵網經古迹記)』가 그 대상이다. 이 가운데 중국과 일본의 주석이 있는 것은 『광석본모송』, 중국 승려 도봉(道峰)의 서문이 있고, 일본에서 30여 종의 주석서가 있는 것은 『보살계본종요』 그리고 『범망경고적기』에 대해서는 약 56종에 이르는 일본의 주석서가 있다. 이 가운데 본고에서는 중국과 일본에서 주목된 『보살계본종요』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그것은 서문과 주석을 통해 태현이라는 인물 및 사상에 대한 중국과 일본의 인식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것은 한국불교연구의 일환이고, 나아가 신라불교 내지는 태현이 재탄생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보살계본종요초(菩薩戒本宗要抄)』라는 문헌에 주목하였다. 『종요초』의 문헌적 의의는 세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중국 도봉의 서문을 완전히 주석한 문헌

*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HK교수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NRF-2011-361-A00008).
*** 이 논문은 2019년 5월 18일 동국대학에서 개최한 봉축학술대회 "동아시아에 유전된 한국불교문헌과 사상"을 수정・보완한 것임.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25.137.52.*** | Accessed 2020/07/01 13:46(KST)

가운데 현존하는 대표적 문헌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서문의 주석에서 '본정방(本淨房)'이라는 방호를 가진 인물이 6회 언급되며, 이 가운데 5회는 스승[師]의 이름으로 비판하는 특이한 문헌이다. 즉, 기존의 서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사상적으로 중요하다. 셋째, '초물(抄物)'이라는 형태의 문헌이라는 점이다. 즉 초물의 특성상 『종요초』는 기존의 『보살계본종요』에 대한 해석전통을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태현의 입장을 대변하는 가운데 저자 자신의 사상을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점으로부터 태현의 『보살계본종요』에 대한 주석 동향 및 전개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문헌이다. 본 문헌에서는 첫째, 태현에 대해서 현장의 제일 제자인 원측의 계보를 잇고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둘째, 종요 등의 의미를 둘러싸고 원효와 법장 등의 설을 수용하여 태현의 설을 옹호하는 가운데 심화시키는 일면을 보인다. 셋째, 중국의 규기, 신라의 의적 등 각 설의 상위를 해결하기 위해 태현의 설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종가(일본 법상종)의 설을 가장 우선시하는 경향성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태현의 『보살계본종요』에 대한 주석서 연구는 중국과 일본 승려들의 태현에 대한 인식 및 인식변화를 읽을 수 있는 작업임과 동시에 태현 사상의 확장성을 독해하는 작업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주제어 ● 신라(新羅), 태현(太賢), 도봉(道峰), 『보살계본종요(菩薩戒本宗要)』, 『보살계본종요초(菩薩戒本宗要抄)』, 초물(抄物)

Ⅰ. 머리말

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한국 승려들의 저술에 대해서는 중국과 일본에서 주석서가 다수 만들어졌다.[1] 그 가운데 가장 많은 주석서가 만들어진 것은 『석마하연론』의 주석서일 것이다. 그런데 『석마하연론』은 고래부터 신라 월충(月忠) 찬술설이 있고, 신라인 찬술설이 강력히 제시되었지만,[2] 여전히 논증이 진행 중이다. 이를

1) 김천학, 「한국찬술불교문헌의 확장성에 대한 일고찰- 태현의 『보살계본종요』를 중심으로」, 『書誌學硏究』 70, 2017, p.207의 조사에 따르면 11종류의 한국인 찬술문헌에 대한 주석서가 만들어졌다. 여기에 일본 『國書總目錄』에 보이는 승장의 『범망경술기』에 대한 주석서 『梵網經述記冠註』(失)와 『梵網經述記集解』(失)를 추가해야 한다.

2) 石井公成, 「『釋摩訶衍論』の成立事情」, 『中國の仏教と文化: 鎌田茂雄博士還曆記念論集』, 東京: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25.137.52.*** | Accessed 2020/07/01 13:46(KST)

제외하면 태현의 저술에 대해서 주석서가 가장 많이 만들어졌을 것이다.[3] 태현의 저술 가운데 주석서가 만들어지는 것은 이미 정리했듯이 『광석본모송(廣釋本母頌)』과 『보살계본종요』(이하 『계본종요』)와 『범망경고적기』(이하 『고적기』)이다. 이 가운데, 중국과 일본의 주석서가 있는 것이 『광석본모송』이지만 현존하지 않고, 중국 승려의 서문이 있고 일본에서 30여 종의 주석서가 만들어진 것이 『계본종요』이며, 『고적기』에 대해서는 일본의 『국서총목록(國書總目錄)』을 통해 조사하면 그 주석서가 56여 종에 이른다.[4]

한국불교연구의 관심은 한국인의 찬술문헌 및 한국에서 만들어진 문헌 등에 관심이 집중되기 마련이다. 그런데 한국인의 찬술문헌에 대한 주석서가 만들어진다면, 주석서에서 그 인물 및 사상이 어떻게 이해되고 있을까 등등의 문제를 추구하여 주석사를 정리하는 것도 한국불교연구의 일환이라고 생각된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신라 태현의 저술 가운데 비교적 짧은 『계본종요』의 주석서를 조사하고, 그 가운데 중요한 특징이 발견되는 『보살계본종요초(菩薩戒本宗要抄)』(이하 『종요초』)를 선택하여 주석 태도의 분석을 통해 신라 태현에 대한 인식을 고찰하려고 한다. 당시 중국의 천태종, 화엄종, 법상종의 주석서와 신라의 원효, 의적 등의 『범망경』 주석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일본에서 가마쿠라시대 이후 특히, 태현의 『범망경』 주석에 대한 복주가 유행된 이유를 사상사적으로 찾아보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Ⅱ. 『보살계본종요초(菩薩戒本宗要抄)』의 문헌적 의의

1. 『보살계본종요』의 유통과 주석서에 대해서

태현의 『계본종요』의 현재의 유통 상황에 관해서는 자세한 연구가 있다. 이에 따르면 13세기초 필사본부터 17세기의 목판본, 목활자본이 일본에서만 유통되고 있으며, 도봉(道峰)의 서문이 있고 각 본 간에 글자의 출입이 있음도 밝혀졌다.[5] 현재 알려진 가장 빠른 『계본종요』는 도지(東寺) 관지원(觀智院)본으로, 1161년의 필사기록이 있으며, 이것 역시 도봉의 서문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6] 현재 확인되는 문헌에는 모두 도

大藏出版, 1988, pp.345~364 ; 『華嚴思想の硏究』, 東京: 春秋使, 1996.

3) 『천태사교의』의 주석서도 많지만, 이 경우는 집해, 집주에 대한 복주가 많다.

4) 김천학, 앞의 논문, 2017, pp.212~214.

5) 최종남, 「太賢의 「菩薩戒本宗要」 유통본 서지조사 및 대조・연구」, 『서지학연구』 74, 2018, pp.53~69.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25.137.52.*** | Accessed 2020/07/01 13:46(KST)

봉의 서문이 있다.[7] 『보살계본종요』의 주석서에 대해서는 이미 『불서해설대사전(佛書解說大辭典)』 제9권과 『율종문헌목록(律宗文獻目錄)』을 통해 31종의 제목과 권수, 저작연대, 존부, 소장처를 통해 목록화한 선행 연구가 있다.[8] 한편, 일본고전적종합목록데이터베이스에서 '계본종요(戒本宗要)'로 검색하면 17종의 주석서 목록이 제공될 뿐이다.[9] 이 두 정보의 기록을 합하고 주석 빈도를 파악하기 위해 『계본종요』 주석서의 현존본 주석 및 간행 연도순으로 대강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보살계본종요(菩薩戒本宗要)』 주석서

	저자	문헌명	저술연도 혹은 간행년도
①	覺盛(1194~1249)	菩薩戒本宗要雜文集1卷寫	저술1229(安貞3)
②	叡尊(1201~1290)	菩薩戒本宗要科1冊	저술1275(文永12)
③		菩薩戒本宗要輔行文集2卷	저술1285(弘安8)
④		宗要聞書第一 1卷	1295(永仁3)
⑤	定泉	菩薩戒本宗要拾遺鈔2卷	저술1296(永仁4)
⑥	英心	菩薩戒本宗要拾義鈔1冊	저술1347(貞和3)
⑦		菩薩戒本宗要樞鏡文集2卷2冊	13~14세기
⑧		菩薩戒本宗要見聞集卷上1冊	13~14세기
⑨		宗要足益勘文集 2卷	1345(興國6)
⑩	公基	菩薩戒本宗要聞書 1卷	1374(應安7)
⑪		菩薩戒本宗要玉華鈔3冊	14세기
⑫		宗要抄第一,第三,第四	1559(永祿2)
⑬		宗要抄物第四	1564(永祿7)
⑭	仙祐	菩薩戒本宗要鈔2卷1冊	1565(寫)
		菩薩戒本宗要抄2卷1冊	1647(正保4)
⑮		菩薩戒本宗要序抄1卷	1611
⑯		菩薩戒本宗要抄物4冊	1632(寬永9)
⑰	高印	菩薩戒本宗要拾義1卷	1662
⑱	寂隱	菩薩戒本宗要關解3冊	1680(延寶 8)
⑲	正亮	菩薩戒本宗要簡註3卷3冊	1690(元祿 3)

6) 京都府立大學 橫內裕人 교수에게 제공 받았다. 본 지면을 빌려 감사드린다.

7) 김천학, 앞의 논문, 2017, pp.219~221에서는 도봉의 서문이 없는 『보살계본종요』가 유통되었을 가능성을 상정하지만, 현재 확인되지 않는다. 『보살계본종요초』 역시 서문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

8) 蔡印幻, 『韓國佛教戒律思想研究(Ⅰ)』, 토방, 1997, pp.571~572. 아울러 大谷由香, 「太賢『梵網經古迹記』の日本における活用について」, 『龍谷大學論集』 492, 京都: 龍谷學會, 2018, pp.1~42 참조 바람.

9) 김천학, 앞의 논문, 2017, pp.217~218. http://base1.nijl.ac.jp/~tkoten/ 참조.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25.137.52.*** | Accessed 2020/07/01 13:46(KST)

⑳	正直	菩薩戒本宗要纂註2卷2冊	1690(元祿 3)
㉑	道峰?	菩薩戒本宗要分科1卷	1695(元祿 8)
㉒	法俊	菩薩戒本宗要助講2卷	1698
㉓	通玄	菩薩戒本宗要資量鈔1卷	1707(寶永4)
㉔		菩薩戒本宗要資糧鈔引據2卷	
㉕		菩薩戒本宗要錄2卷2冊	1722(享保7)
㉖	泰州	菩薩戒本宗要贊成記 2卷	1743
㉗		菩薩戒本宗要二卷抄 2卷	
㉘		菩薩戒本宗要科分1帖	

<표 1>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주석서마다 도봉(道峯)의 서문에 대한 주석이 다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없거나 있어도 전체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다. 도봉 서문의 유무를 기준으로 확인된 것은 다음과 같다. 가장 빠른 주석서인 가쿠조(覺盛) ①에는 서문이 있지만, 세군데 정도만 주석되어 있을 뿐이다.[10] 다음에 나온 에이손(叡尊) ③에는 없다. ④는 미확인이지만 그 다음 정도로 빠른 ⑤와 ⑥에도 없다.[11] ⑦과 ⑧에도 없다.[12] ⑨와 ⑩은 미확인이다. ⑪에서 서문의 주석이 있을 것이지만 현존본에는 결락되어 있다. ⑫는 미확인이고, ⑬은 4권만 현존하기 때문에 서문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면 ⑭에서 완전한 서문의 주석이 처음 확인된다.[13] 그 외 시교쿠(思玉)라는 인물의 사본 등이 존재하는데 역시 미확인으로 연대 등도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향후 확인해나가고자 한다. 한편, 현존하지 않는 주석으로

> 라이유(賴瑜, 1226~1304) 菩薩戒本宗要略抄1卷/ 교넨(凝然, 1240~1321) 菩薩戒本宗要序記1卷, 저자미상, 菩薩戒本宗要七日抄

등이 있어 이들을 합하면 33건 정도에 이른다. 물론 이것이 『보살계본종요』의 주석서의 전부는 아니다. 예를 들어 ②는 에이손의 과문이 단독으로 유통된 것이지만, 후세 과문을 본문에 삽입하여 1671(寬文11)년에는 『과입계본종요(科入戒本宗要)』가 유통된다.[14]

---

10) 『菩薩戒本宗要雜文集』 '千歲之後二宗肇興'(T74, 40b5), '執有則遣空著空則遣有'(T74, 40b14), '則五日傳照於五天'(T74, 40b23)」

11) ⑤의 저자 定泉과 ⑥의 저자 英心은 『表無表章顯業鈔』 6권 (定泉談英心記) 『日本大藏經』 第11卷 戒律章疏部의 기록을 보면 사제관계일 수도 있을 것이다.

12) 神奈川縣立金澤文庫・東國大學校佛教文化研究院HK研究団共同特別展示會, 『アンニョンハセヨ！元曉法師-日本からみつめた新羅・高麗佛教』, 横浜: 金澤文庫, 2017, 資料11~12.

13) 필자소장본.

14) 필자소장본.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25.137.52.*** | Accessed 2020/07/01 13:46(KST)

또한 미노부산문고에도 1596년에 니치렌슈의 니치온(日遠, 1572~1642)이 주석한 『보살계본종요사(菩薩戒本宗要私)』가 존재한다.[15] 이로써 35종 정도의 『계본종요』의 주석서가 존재한다. 이 가운데 본격적 주석이라고 하기 어려운 과문 관련인 <표 1> ②, ㉑, ㉘과 교넨의 현존하지 않는 과문 및 『과입계본종요』 5건을 제외해도 30종에 이른다. 태현의 『보살계본』에 대한 주석서는 일본고전적종합목록데이터베이스에서 '범망경고적'으로는 39건정도, '범망고적'으로 16건 정도, '하권고적' 1건, '상권고적' 2건, 합하여 58건이 된다. 또한 채인환도 60종류의 주석서의 목록을 모았다.[16] 즉 『고적기』 주석서의 50%가 『종요』에 대한 주석서인 셈이다.

오타니유카의 논문에서 가마쿠라시대에 율종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태현의 『고적기』가 주목받게 되는 경위를 서술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계율부흥운동의 중심인물이었던 조케이(貞慶)는 자설을 보완하기 위해서 『고적기』를 인용하였다. 한편 조케이의 계율부흥운동은 송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슌조(俊芿)에 의해 힘을 받게 된다. 슌조의 귀국 전후로 해서 『고적기』가 다시 주목을 받게 된다. 그리고 가쿠켄(覺憲)과 조케이(貞慶)가 계율 부흥을 위해 설립한 상희원(常喜院)에서 배운 가쿠조(覺盛)와 에이손(叡尊)의 저작물이 나올 무렵 『고적기』에 대한 인용이 늘기 시작하였고, 특히 조케이는 도쇼다이지(唐招提寺)에서 최초로 태현의 『고적기』를 강의하기도 하였고, 계율연구를 위해 반드시 학습해야할 문헌 가운데 태현의 『고적기』를 포함시켜 문도들에게 전했다. 이 영향은 매우 컸다. 이후에도 『고적기』 강의는 계승되었다. 이렇게 해서 교넨(凝然)은 『율종경감장(律宗瓊鑑章)』에서 남도의 율사들 대부분이 태현의 『고적기』를 활용한다고 진술하게 이르렀다."[17] 이와 같은 태현의 『고적기』 연구 붐과 더불어 『고적기』를 이해하기 위한 강요서로서 『계본종요』가 새로이 발견된다.[18] 덧붙이면, <표 1> ① 가쿠조의 『잡문집(雜文集)』처럼 1229년에 『계본종요』의 주석서가 저술되는 것을 고려한다면, 보살계의 의식 및 조목 해석에서 『고적기』가 중심이 되었겠지만, 중국의 법상종 승려로 추정되는 천복사(薦福寺) 도봉(道峰)의 서문이 『계본종요』에 실려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계기가 되어서 결국은 『고적기』와 『계본종요』는 거의 동시기에 주목되었다고 생각된다.

15) 身延文庫轉籍目錄編輯委員會, 『身延文庫轉籍目錄 中』, 山梨: 身延文庫, 2004, 20-A-20, p.100.
16) 蔡印幻, 앞의 책, 1997, pp.560~563. 이것은 일본의 『國書總目錄』에서 기재되어 있는 56건 정도의 주석서 수보다 많다.
17) 大谷由香, 앞의 논문, 2018, pp.15~22.
18) 大谷由香, 앞의 논문, 2018, p.26.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25.137.52.*** | Accessed 2020/07/01 13:46(KST)

2.『보살계본종요초(菩薩戒本宗要抄)』의 문헌적 의의

도봉 서문의 완전한 주석서가 있는 <표 1> ⑭『종요초』의 저자는 센유(仙袖)이고, 판본과 사본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미 소개하였다.[19]『종요초』는 도봉(道峯)의 서와『종요』본문을 온전히 주석한 문헌 가운데 현존하는 대표 문헌이다. 그런데, 서문 주석의 내용에서는 본정방(本淨房)이라는 방호가 6번 언급되는데, 그 가운데 5번은 스승[師]의 이름을 들어 비판된다. 이것을 통해『종요초』가 이전의 서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계승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즉,『종요초』는 도봉 서에 대한 이해의 변화를 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비판 가운데서 중요한 사실을 전해주는 두 가지를 소개한다.

① 義記者古義云(本淨房云)今宗要ノ記ス二菩薩戒本之大義ヲ一.故此宗要ヲ名二義記一.云云 師云.此義不レ爾.今ノ序爲タラクレ體全ク非二宗要ノ序ニハ一只是太賢法師德ヲ序スル也(<序1좌>

(의기는, 옛 뜻(본정방이 말했다)에 지금의『종요』는 보살계본의 대의를 기록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종요를 의기라고 이름한다 등등 말하였다. 스승이 말씀하시길, 이 뜻은 그렇지 않다. 지금의 서는 체가 되는 것이며, 종요의 서는 전혀 아니다. 다만 이것은 태현법사의 덕을 서술하는 것이다.)

② 本淨房抄物二出前二義一已初ヲ爲二不正ト一後ヲ爲二正義一也 師云此等諸義皆不レ合二文意一也(序11좌)

(본정방의『초물』에 앞의 두가지 뜻을 내어서 처음 것은 정의가 아닌 것으로 삼고, 뒤의 것을 정의로 삼았다. 스승께서 말씀하였다. 이들 여러 뜻은 다 문장의 뜻에 맞지 않는다.)

①을 통해 본정방이 고의(古義)로 표현되거나 혹은 본정방이 고의를 인용하여 설명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②를 통해서는 본정방이『종요초』와 같은 '초물(抄物)'의 저자라는 점을 알 수 있다.『종요초』에서는 본정방의 설을 비판할 때 스승을 들어 한다는 점은 나머지 예에서도 공통된다. 그렇다면 본정방은 누구일까. 그 실체를 알면『종요초』의 성격도 더 분명해질 수 있다. 이전에 본정방을 정토종의 도쿄겐이(道教顯意, 1239~1304)로 상정하였다.[20] 시대적으로는 일치하는 듯하지만, 그 추정은 오류일 것이

19) 김천학, 앞의 논문, 2017, pp.203~225.

20) 김천학, 앞의 논문, 2017, p.219. 神奈川縣立金澤文庫・東國大學校佛教文化研究院HK研究団共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25.137.52.*** | Accessed 2020/07/01 13:46(KST)

다. 본정방에 대해서는 몇 가지 정보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확정할 수 있는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21] 비판대상이 누군가에 따라서 본서의 성격도 정해지는 만큼 향후 밝힐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본 문헌이 '초물(抄物)'이라는 점에 주목할 수 있을 것이다. '초물(쇼모노, 쇼모츠)'은 한자문헌을 강의할 때 수강자가 강의를 필기한 수강노트, 강의의 초안, 또는 강의조로 기록한 주석을 가리킨다.[22] 일반적으로 「-초」라는 서명이며, '초록한 문헌'의 총칭으로 「-문서(聞書)」도 여기에 해당되는데, 『종요초』는 <표 1>의 ⑤ 보살계본종요습유초(菩薩戒本宗要拾遺鈔)(이하 『拾遺鈔』)와 ⑥ 보살계본종요습의초(菩薩戒本宗要拾義鈔)(이하 『拾義鈔』)를 많은 부분 답습하는 것이 확인된다. 이로써 보자면 『종요초』는'초물'로서의 성격을 확실히 드러낸다.[23] 물론 자세한 비교 연구가 전제되지만, '초물'이라는 성격을 통해 태현 주석서의 계보 내지 주석의 확장성을 탐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로서는 『종요초』가 그 이전의 주석서 내지 초물을 수용하여, 이후의 주석서에 영향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상으로 『종요초』 문헌의 특색을 정리했다. 이하 그 구체적 내용을 『종요초』의 태현 인식을 중심으로 확인하도록 하겠다.

Ⅲ. 『보살계본종요초(菩薩戒本宗要抄)』의 태현 인식

1. 계보를 통한 태현 인식

우선, 『종요초』의 서문의 초에서는 태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계보 인식을 보인다.

> 지공(持公)이 말했다. '당의 삼장에게 3천인의 문도가 있고, 그 중에 70인의 달자를

同特別展示會 앞의 도록, 자료10에 대한 해제도 그렇게 기술하였다.

21) 本淨房은 SAT(T51. 161b29, T83. 462a25)에서 두 번 검색된다. 한편, 비슷한 시기에 定泉의 『古迹記補忘抄』(『日本大藏經』제37권, 217, 233)에서 本淨(靜)長老의 이름이 나온다. 본정장노는 SAT에서 세 번 검색되는데(T62. 439b6, T74. 123b28, T74. 123c16), 그 가운데 照遠 『行事鈔』에 北京本淨長老라는 명칭이 있어서 北京泉涌寺와의 관련성도 포함하여 향후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

22) 『日本古典籍書誌學辭典事典』 해당 항목 참조.

23) 版本의 본문 내제는 '宗要抄物'로 되어 있어, 본 문헌이 '초물'을 표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25.137.52.*** | Accessed 2020/07/01 13:46(KST)

> 꼽을 수 있는데, 그 중 제일이 서명사이다(원측사). 그 문하의 제자에 도증사가 있다……. 태현은 저 도증사의 제자이다(운운).[24]

지공에 대해서는 현재는 미상이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현장의 제자 가운데 가장 뛰어난 제자를 기(基)가 아닌 원측으로 본다는 사실이다. 중국 전통에서는 당연히 대승기가 최고의 제자이다.[25] 원측을 최고로 보는 설은 『종요초』가 많이 참조하고 있는 <표 1> ⑤의 『습유초(拾遺鈔)』(1296년)에는 보이지 않고, 『습의초(拾義鈔)』(1347년)에는 원측-도증-태현의 계보는 주장되지만, 원측이 제일이라는 표현은 없다.[26] 이와 같이 원측을 제일로 하는 전통은 이미 지적된 것처럼,[27] 도쇼다이지(唐招提寺) 쇼온(照遠)의 『범망경하권고적기술적초(梵網經下卷古迹記述迹抄)』(1333년)에서 유래한다.[28] 이후 원측을 제일로 하는 해석은 『종요』 주석서 등에서 자주 볼 수 있다. 우선, 1582년 간본을 볼 수 있는 『범망고적초』에서 『술적초』를 그대로 수용한다.[29] 그리고 1690년의 문헌인 『보살계본종요찬주(菩薩戒本宗要纂註)』에서도 '본조의 고덕들이 서로 전하는 바에 따르면[本朝古德相傳曰]'이라고 하여 단순히 자기의 의견이 아니라 일본의 고덕들에 의해 수용되고 전해지는 설로서 소개한다.[30] 한편 니치렌슈(日然宗) 니치온(日遠)이 저술한 『보살계본종요사(菩薩戒本宗要私)』(1596년)에도 사본을 확인한 결과 『종요초』의 문장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31] 따라서 원측이 현장삼장의 제자 중의 제일이라는 인식과 그를 이은 태현이라는 인식은 릿슈(律宗)뿐 아니라 조도슈(淨土宗), 니치렌슈 등으로 확산되었고 일본 종파 내에서 저항감 없이 상당히 받아들여진 듯하다.

---

24) "持公云. 唐三藏有三千人門徒 撰之以七十人達者 此中之隨一名西明師(圓測師也)彼門弟云道證師(亦要集 以文中名 以西字名作者 依貴西明置頭也)太賢彼道證師之弟子(云云)" (序1右)

25) 『法華傳記』卷3 "大乘基者. 遍學三藏上足資. 三千門徒. 七十人達者. 四人上首.於中皆最"(T51.58a)

26) "玄奘三藏門人三千之內 西明寺圓測師之弟子 有道證法師 今師彼道證法師弟子也 圓測師孫弟子也"(上2左)

27) 蔡印幻, 앞의 책, 1997, p.502.

28) 卷一上, "太賢者有人云玄奘三千門徒七十人達者隨一圓測法師 門弟道證之弟子(文亦云要集也)太賢彼道證師之弟子"(『日本大藏經』 第38卷. 233上)

29) 『梵網古跡抄』卷1(D15. 11b)

30) "本朝古德相傳曰玄奘三藏有三千徒學通玄關七十餘人 其隨一有西明圓測,測之徒有道證法師 太賢也者證之高第"(『日本大藏經』 第39卷. 284下)

31) 현재 『종요초』의 사본은 1565년이고 도봉의 서에 대한 주석 부분이 없다. 판본은 1647년으로 도봉의 서에 대한 주석이 있다. 도봉서문에 대한 주의 성립연대에 대해서는 검토의 여지가 있지만, 본고에서는 일단 1565년에 같이 쓰여진 것으로 보았다. 그런 뜻에서 1596년에 저술된 니치온의 『종요사』가 『종요초』를 인용한 것으로 보았다.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25.137.52.*** | Accessed 2020/07/01 13:46(KST)

2. 해석 차이를 통한 태현 인식

(1) '종요'의 '종'을 둘러싼 해석

첫째, 종요에 대한 해석이다. 『종요초』에서는 종요에 대해서 두 가지 뜻이 있다고 본다.

즉 첫째는 악행에 대해 훈계하는 것[誡惡行]을 종(宗, 핵심사상)으로 삼는다. 이것은 『상권고적(上卷古迹)』의 종취문을 문증으로 삼았다.[32] 그리고 둘째는 지범을 종으로 삼는다. 이것은 『계본종요』의 "지금 이 경전에 의거하여 지범의 요점을 해석한다"[33]를 문증으로 삼았다. 『종요초』에서는 『계본종요』가 "원효의 『지범요기』를 근거로 중요한 문장들을 모았다"[34]고 할 정도로 '지범'을 중시한다고 인식했다. 그리고 『종요초』에서는 바로 뒤에 삼취를 종으로 삼는 설을 하나 더 소개하면서, 삼취는 결국 악행을 훈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첫째 설과 차이가 없다고 보았다. 『종요초』에서 『보살계본』의 종요를 악행에 대한 훈계와 지범을 둘 다 종요로 인정하여 중요시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종요초』에서의 종요를 둘러싼 이 논의는 『습유초』를 답습한 것이다. 즉 『습유초』에서는,

> 종요에는 옛부터 두 가지 뜻이 있다. 첫째는 10중 48계를 종으로 삼는다. 『상권고적』으로써 증명할 수 있다. 저기에서는 종취를 밝히면서 '처음에 심행을 종으로 삼는다'고 하였다.(문) 후에는 교정행(教正行)과 계악행(誡惡行)의 두 문을 열었다. 더욱이 하권에서는 10중 6×8계를 종으로 삼는다고 본다. 둘째는'지범'을 종으로 삼는다. 스승께서 전한 말씀에 이 '종요'는 원래 『지범요기』로부터 나왔다고 하였다.[35]

라고 하였다. 이로써 『종요초』에서는 『습유초』의 두 가지 해석을 답습하고 있으며, 『계본종요』에서 원효의 『지범요기』를 모범으로 했다는 설도 그대로 수용하였음도 알 수 있다. 『종요초』에서는 여기에 '삼취계'를 종으로 삼는 설을 더하면서, 앞에서 언급했듯이 '삼취계'는 첫째 뜻과 다름이 없다고 하며 결국 태현의 두 가지 설로 압축하여 종

32) 『梵網經古跡記』卷1 "誡惡行者, 卽經後說十重四十八輕戒行"(T40. 689c)

33) 『菩薩戒本宗要』卷1 "今依此經釋持犯要"(T45. 915b)

34) 『菩薩戒本宗要抄』 "依元曉師持犯要記集此要文故云撰"(上3左)

35) 『拾遺抄』 "宗要者古來有二義 一義云以十重四十八戒爲宗 以上卷古迹爲證也 彼云明宗趣者初以心行爲宗(文) 後開教正行誡惡行二門 尤下卷十重六八爲宗見也. 一義云持犯爲宗 師傳云 此文源起從持犯要記."(4右)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25.137.52.*** | Accessed 2020/07/01 13:46(KST)

요의 의미를 파악한 것이다. 한편, '삼취계(三聚戒)'를 종으로 삼는 설은 법장의 『범망경보살계본소』의 주장이다. 법장은 소전종취를 논하면서 아래와 같이 말한다.

> 종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총체적이고, 둘째는 개별적이다. 총체적이라 함은, 보살은 삼취정계를 종으로 삼는다. 이 삼취정계의 문장 가운데 올바른 취지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존중되고 숭상되어야 할 바가 오직 이 행위이기 때문이다.[36]

이와 같이 세 번째 설은 법장의 『보살계본소』로부터 원용한 것인데, 그러면서도 『종요초』에서는 법장의 주장이 태현의 첫째 주장과 차이가 없다고 보고 태현의 주장으로 수렴한 것이 된다. 법장설을 수용하여 회통시키는 이와 같은 예는 조센(定泉)의 『범망경고적기보망초(梵網經古迹記補忘抄)』(이하 『보망초』)에서 이미 볼 수 있다.[37] 조센의 『보망초』를 읽으면, 법장의 정의는 하권에만 해당하고, 태현의 정의는 상하권을 통해서 정의되기 때문에 두 가지로 나누었다고 태현을 옹호하고 있어서, 회통이라고는 해도 무게중심은 태현에게 있다.[38] 이러한 사실로부터 『종요초』의 저자 센유(仙袖)가 기존의 『계본종요』 내지는 『고적기』 주석서 등을 중심으로 『종요초』를 구성하면서도 보살계에 관한 일부 견해에서는 태현을 중심으로 인식하고자 했던 의도를 읽을 수 있을 것이다.

(2) '유심(有心)' 해석의 상위

다음은 '유심(有心)'에 대한 해석의 상위를 소개한다. 여기서는 신라 의적(義寂)과의 견해 차이를 볼 수 있다. 『계본종요』에서는 『범망경』의 '일체 마음이 있는 자들은 모두 마땅히 불계에 수렴되어 있다[一切有心者 皆應攝佛戒]'라는 게송을 '능성자(能成者)'(=계의 주체자)를 해석하기 위해 인용하는데,[39] 이 가운데 경문의 '일체유심자(一切有心者)'의 '유심'를 둘러싸고 해석이 나뉜다.

> '유심'에 대해서, 의적스님은 보리심으로 보았다. 의적스님은 '즉, 일체중생은 부처가 될 신심이 있고, 모두 마땅히 모든 부처의 계를 섭수한다.'(문)라고 했다. 이미 '부처

36) 『梵網經菩薩戒本疏』卷1 "宗中亦二. 先總後別. 總者. 以菩薩三聚淨戒爲宗. 以是文中正所詮顯. 所尊所崇唯此行故"(T40. 604a)

37) 定泉, 『梵網經古迹記補忘抄』(『日本大藏經第』 第37卷. 208下-209上)

38) 定泉, 『梵網經古迹記補忘抄』 "答彼師且釋下卷戒本. 是故取誡惡行門爲宗也. 若通上下兩卷解釋, 如今師可立二門也"(『日本大藏經』 第37卷. 208下)

39) 『菩薩戒本宗要』卷1 "一能成者. 如經曰. 一切有心者,皆應攝佛戒.謂無上乘,至深至廣"(T45, 915b)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25.137.52.*** | Accessed 2020/07/01 13:46(KST)

> 가 될 신심'이라고 했으니 즉 보리심이다. 태현의 해석에 의하면 '유심'이란 '정식(情識, 보통의 마음)'이다. '정식을 갖춘 자는 반드시 보살계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 보리심을 가리켜서 '유심'이라고는 하지 않는다. 『고적기』의 뜻도 이와 같다고 본다. 그는 '응'은 '수용함'이다. 장애가 있거나, 무성이면 계를 성취할 수 없다.」(운운)고 하였다. '유심'이 보리심이라면 어째서 태현이 이와같이 해석했겠는가. 그러므로 '유심'은 '보통의 마음이 있음'을 뜻한다.[40]

위의 해석으로 보자면, 의적은 보리심으로 보았고, 태현은 『종요』와 『고적기』를 통해 보자면 '정식'으로 보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해석 역시 『습유초』와 『습의초』의 해석을 답습한 것이다. 다만, 의적이든 태현이든 자신의 저술에서 '유심'을 명확히 '보리심' 혹은 '정식'으로 명언하지는 않았다. 『종요초』에서 그렇게 해석한 것이다. 확실한 증거가 부족한 부분인 만큼 여전히 논란의 여지를 남긴 듯하다. 우선, 이 부분에 대한 『범망고적초』의 해석을 보면 다음과 같다.

> 문: '『의적소』에서 '모두 마땅히 불계를 섭수한다'함은 즉 일체중생에게 성불의 신심이 있어 모두 불계를 수용함이 마땅하다는 것이다'(文)고 말하였다. 이 해석은 위의 경문에서 통상 이와 같이 신(믿음) 등의 문장을 거론하는 것을 수렴한 것이다. 즉 보리심을 지시하여 유심이라고 한 것이다. 그런데, 태현의 해석은 분명하지 않다.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가?
>
> 답: 전하는 말에 '유심'은 '정식이 있는 자이다'(라고 한다). 그러므로 유심자는 대심을 발할 수 있다는 해석은 더욱 더 그렇다고 본다. 법선은 해석하여, '초목과 돌과 물은 제외하기 때문에 유심이라고 한다'(문)고 했다. 『법장소』에서는 '다만 법사의 말을 이해하면 다 계를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일체유심자' 등이라고 한 것이다'(문)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해석으로 반드시 보리심에 기준을 둘 필요는 없다. 다만, 일성종이기 때문에 유성과 무성을 구분하지 않은 것이다.[41]

---

40) 『종요초』 "有心者, 寂師意菩提心見. 彼云. '謂一切衆生有成佛信心, 皆應攝受諸佛戒也.'(文) 旣云成佛信心卽是菩提心也. 若依今師解釋有心者情識也. 具情識者必可受菩薩戒 (爲言) 指菩提心非云有心. 古迹意如是見. 彼云 '應者容也. 有障無性不成戒故' 云云 有心若菩提心, 何如是可釋乎. 故有心者有情識義也."(上17右)

41) 『梵網古跡抄』卷2 "問義寂疏云皆應攝佛戒者謂一切衆生有成佛信心皆應攝佛戒也(文)此釋攝上經文常作如是信等文則指菩提心云有心也 今師解釋不分明云何可得意乎 荅傳云有心者有情識者(爲言)故有心者得發大心之解釋尤如是見.依之法銑釋云簡草木石水故云有心(文)法藏疏云但解法師語盡受得戒故云一切有心者等(文)是等解釋必不約菩提心但一性宗故不簡有性無性也"(D15, 89b)(1644년 간본 39丁)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25.137.52.*** | Accessed 2020/07/01 13:46(KST)

위 해석을 보면 1644년에 간행된『범망고적초』는『종요초』의 해석을 답습하면서도, 태현의 의도는 분명하지 않다고 전제한 후,『종요초』의 해석대로 '유심'이 '보리심'이 아니고 '정식'이라는 데 동의한다. 한편『보살계본종요찬주』에서는 영지(靈芝) 즉 원조(元照)의 해석을 인용하여,『종요초』가 인용한『고적기』의 뜻도 보강하면서 중생심으로 단정한다.[42]

그런데, 쇼온의『술적초』에서는『종요초』혹은『찬주』로 이어지는 해석과는 반대로 '유심'에 대한 태현의 입장을 이해한다.

> 문: 유심이라는 말은 바로 보리심을 가리킨다고 본다. 그러므로 아래『고적기』에서 그것을 해석하여'마음이 있는 자는 대심을 발할 수 있다'고 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유정의 위의(威儀)가 아니다. 뜻의 해석은 분명하다. 덧붙여『의적소』에서 말하길 '모든 마음이 있는 것은 마땅히 불계를 섭수한다'라는 것은 즉 일체중생에게는 부처가 될 신심이 있어서 모두 마땅히 모든 불계를 섭수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이 해석의 뜻은 위의 경문에 부합하여 뜻을 얻었은 것이다.[43]

즉『술적초』에서는 이전의『계본종요』주석서와『범망고적초』와는 달리 같은 문헌을 읽고도 '유심'을 '보리심'으로 해석하였다. 그렇다면『습유초』의 저자인 조센(定泉)이 저술한『범망경고적기보응초』에서는 어떻게 해석하였을까. 본서의 권4를 보면 위에서 인용한『범망고적초』의 문장 전체가 그대로 실려있음을 알 수 있다.[44] 조센은『의적소』뿐 아니라,『법선소(法銑疏)』와『법장소(法藏疏)』를 동원하여 유심이 정식임을 밝혔다. 그렇다면 조센과 쇼온(照遠)은 왜 서로 상반된 견해를 가지게 되었을까. 이것은 에이손(叡尊)의 설을 계승하는 사이다이지(西大師)의 계통의 조센(定泉)과 가쿠조(覺盛)의 설을 기본으로 하는 도쇼다이지(唐招提寺) 계통의 쇼온(照遠)의 해석상 상위로 볼 수 있을 것이다.[45] 태현의 저술을 통해서 각각의 주장을 도출해낸다는 점에서, 태현의

---

42)『菩薩戒本宗要纂註』「靈芝云有心卽目衆生. 華嚴云凡有心者皆當作佛是也. 皆應攝者古迹云有障無性不成戒故」(『日本大藏經』第39卷, 298下) '靈芝云-佛是也'는『四分律含注戒本疏行宗記』卷4(X40, 174b).

43)『述迹抄』"問有心之言正指菩提心見 是以下釋之 有心者得發大心 爾者是非有情儀 旨釋分明 加之 義寂疏云 一切有心皆應攝佛戒者 謂一切衆生道成佛信心皆應攝受諸佛戒也 此釋意接上經文得意也"(日本大藏經 第38卷, 317下-318上)

44)『日本大藏經』第37卷, 266下-267上.

45) 두 문헌에 대해서는『日本大藏經』解題 97권의 144번, 146번 항목 참조. 兩寺의 대립에 대해서는 石田瑞麿,『日本佛教における戒律の研究』, 第5章 鎌倉時代における戒律(東京: 中山書房, 1963 초판, 1976 재판) 蓑輪 顯量,『中世初期南都戒律復興の研究』第10章 覺盛と叡尊の戒犯意識の相違(法藏館, 2000) 照遠,『述迹抄』(日本大藏經 제38권, 제39권)에서는 에이손의 견해를 비판하는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25.137.52.*** | Accessed 2020/07/01 13:46(KST)

저술은 양 사 쟁점의 기초를 제공하고, 나아가서는 심화되어 가는 논의의 중심에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3) 성죄현행(性罪現行)을 둘러싼 상위

『계본종요』의 '소분현행(少分現行)'이라는 말을 둘러싸고 여러 해석이 소개된다. 이 말은 성죄 가운데 일부가 현행된다는 견해에 해당한다. 우선 『계본종요』의 구체적 문장은 다음과 같다.

> 이로 인해 또한 성죄가 현행함이 있다. 『유가사지론』의 설과 같이 '좋은 권방편은 타인을 이익되게 하기 때문에 모든 성죄가 일부 현행해도 범하는 바가 없고 반대로 공덕을 생기한다.'내지는 널리 설했다. 만약 지극한 지(知)로써라면 오직 부처의 경계만이 근기[分]에 맞게 따라준다. 그러므로 일체는 마음에서 연유하는 것이다.[46]

위의 『계본종요』의 문장 및 이해는 『유가론』을 전거로 삼았는데, 이 구문에 대한 『종요초』의 내용 역시 『습유초』와 『습의초』의 해석을 답습하였다. 예를 들어 『종요초』와 『습유초』에서는 「소분현행」에 대해서 아래 <표 2>와 같이 서술한다.

<표 2> 「소분현행(少分現行)」 비교

『습유초』	『종요초』
「少分現行」者. **師云**爲利益行殺生等 輒不作之 切利益現前時 隱密行之 是故云少分也 古迹中名隱密門亦此意也	「少分現行」者 (중략) 今一**義云** 少分者 隱密悕有義也 輒不作之 切利益現前時 隱密作之 是故云少分也 古迹中名隱密門亦此意也

위의 <표 2>처럼 『습유초』의 '사운(師云)'이 『종요초』의 '일의(一義)'로 바뀌어서 인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스승은 에이손의 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일의'로 바꿨다는 것은 『종요초』의 저자가 에이손을 직접 잇는 계통이 아님을 알려주는 증거가 될 것이다. 「소분현행」 구에 대한 해석에서는 『종요초』에서 아래 <표 3>과 같이 태현이 자은을 파한다는 내용이 나오며, 이것은 「若以至知」 구에 대한 『습유초』, 『습

예를 종종 볼 수 있다. 제38권, 242하-243상, 261상, 342하, 343하 제39권 28상 등등.

46) 『계본종요』 "由此亦有性罪現行. 如瑜伽說, 善權方便爲利他故, 於諸性罪, 少分現行. 而無所犯, 反生功德. 乃至廣說. 若以至知, 唯佛境界而隨分故, 一切由心"(T45, 916a)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25.137.52.*** | Accessed 2020/07/01 13:46(KST)

의초』의 내용으로부터 수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표 3> 태현이 자은을 파한다는 해석 비교

『습유초』	『습의초』	『종요초』(24-26)
「若以至知」等者師云實**破慈恩等義**也**慈恩南山**等意初地已上開行利益殺生給故 太賢如是破給也 今師意 地前眞實有利益時 至知者能知 窮利益不利益等分齊也	「若以至知唯佛境界」等 此解釋意**慈恩南山**等於初地已上開行利益殺生等 **今師不尒** 雖地前凡夫有利益時 開行之 由斯爲**破慈恩等義** 云「若以至知」等 知 窮利益有無, 唯佛境界等覺菩薩猶非究竟 若聽隨分 縱雖凡位何不許之乎	此解釋意**慈恩南山等**於初地已上開行利益殺生等 **今師不尒** 雖地前凡夫有利益時 開行之 由斯爲**破慈恩等義** 云「若以至知」等 知 窮利益有無, 唯佛境界等覺菩薩猶非究竟 若聽隨分 縱雖凡位何不許之乎 菩薩一切依意樂故 (云云)

위의 <표 2>에서는 『습유초』 에서 「소분현행」이 '이익을 위해 살생을 행함[爲利益行殺生]'의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주석한다. 이어 <표 3> 「若以至知」에서도 같은 문제의 연장선 상에서 다루고 있다. 한편, 『습의초』에는 「소분현행」의 문구에 해당하는 주석은 없고, 「若以至知」에 대해서는 역시'이익살생'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룬다. 『종요초』에서는 「若以至知」에서만 '이익살생'의 문제를 다룬다. 살생의 문제는 성죄와 관련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습유초』에서부터 이 문제를 다룬 것으로 생각되는데, 문장의 유사성으로 보면 『종요초』에서는 『습의초』를 따라서 태현이 자은을 비판하였다고 해석한 듯하다.

그렇다면 태현과 자은의 상위는 무엇인가? 자은은 초지이상이 되어야 중생의 이익을 위하여 살생을 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입장이다. 반대로 태현은 초지이전에도 허용된다는 것이다. 다만, 태현이 이러한 주장을 하였는지는 『종요』의 문장으로 알 수 없다. 『고적기』에서도 명확한 문구는 찾을 수 없다. 일본의 태현 해석 전통에 해당한다. 명확한 문증의 부재 때문인지 『종요초』에서는 다음과 같이 회석의 가능성도 제시하고 있다.

> 문: 태현사의 뜻은 지전에도 통하는 것을 허용한다. 그러나 무섭석 『섭대승론』에서 '후득묘지에 [상응하여서] 살생을 행하[는 것이 죄가 안된다]'는 등의 문장이 있다. 어떻게 화회할 수 있는가?
>
> 답: 『섭대승론』의 문장은 진실로 지상도리에만 한정하는 듯하지만, 도리는 범부에도 통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전에도 공통된다고 해석하는 것이다. 또한 『유가론』의 문장은 범과 성을 나누지 않았다. 그렇다면, 『섭대승론』은 위지에 근거하여 회통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25.137.52.*** | Accessed 2020/07/01 13:46(KST)

> 할 수 있다. 혹은 어떤 사람은 '태현사의 뜻이 지전에 통한다는 것은 유인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는 지상에서 가능하다. 『섭대승론』문장은 분명히 지상에 국한되었기 때문이다.' 등등을 말하였다.[47]

위 인용문은 두 가지 주장을 통해서 화회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첫째는 『섭대승론』 자체의 뜻에 두 가지 의미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고, 둘째는 태현의 주장을 정의과 방편(유인책)으로 나누는 것이다. 즉 『종요초』의 저자는 태현의 주장을 물리치지는 않았지만, 『섭대승론』과의 차이는 염두에 둔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긴 해도 완전히 지상(地上)으로만 한정하는 자은과는 차별을 두고 태현이 그러한 학설을 비판했다고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48]

(4) 종가(宗家)와의 상위에 대해서

『종요초』에서의 태현 인식을 볼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종가(宗家)와의 상위를 통해서이다. 우선, 『종요초』에서 가리키는 종가의 구체적 의미에 대해서 고찰할 필요가 있다. 서문의 주에서는 일음교를 둘러싼 논의에서 '종가는 그것을 허용하는가. 답: 종가는 완전히 일음의 가르침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때문에 등사(燈師)가 능히 파하는 문장에서……'[49]라고 한다. 따라서 등사(=혜소)의 이름을 들기 때문에 법상종으로 우선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종가의는 무색계의 별해탈계를 얻을 수 없다'라는 문장이 있다.[50] 이 문장은 『범망경고적초』에서는 치주(淄州=혜소, 『고적초』에서는 溜洌로 오기됨)의 설을 인용한 후에 나온다.[51] 따라서 역시 법상종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마도 신라계를 제외하고 중국 법상종에 근거를 둔 일본의 법상종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종요초』에서는 태현과 종가와의 상위가 한 군데서 논해진다. 그것은 범중죄(犯重罪)

---

47) 『종요초』 "問. 今師意 許通地前 然攝論後得妙智行殺生等 文 如何會哉. 答. 攝論文 誠雖似限地上道理可通凡夫故 釋通地前也 又瑜伽文相通邊不簡凡聖 亦者 攝論且約位說可會也 或一義云 太賢師意通地前者誘引門也 實於地上可許也攝大乘論文分明局地上故 云云"(上26右)

48) 『종요초』에서 자은을 파한 사실을 긍정적으로 기술하지만, 이후 일본 불교의 계율사상사에서 태현의 지전 긍정이 정의가 된 것은 아니고, 두 설이 공존하는 듯하다. 照遠, 『資行鈔』(T62, 837c), 凝然 『梵網戒本疏日珠鈔』(T62, 77b)에서 '利益殺生'으로 검색하면 참조 가능하다.

49) 『종요초』 "宗家許之乎 答宗家非都不許一音之義故燈師能破文云"(序6右)

50) 『종요초』 "宗家意無色界不得別解脫戒也"(上17左)

51) 『梵網古跡抄』 卷1 "又十業道章(溜洌)云然除無色無趣大故(文)當知宗家定判無色界不得別解脫戒也"(D15, 16a)(1644S년 간본 15丁)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25.137.52.*** | Accessed 2020/07/01 13:46(KST)

를 둘러싼 문제이다.

> '중죄를 범함[犯重罪]'이라 함은, 「표무표장」에 두 가지 이해가 있다. 첫째는 상전의 경우 계를 잃지만, 중하전은 잃지 않는다는 견해이다. 『유가론』 제40권과 『십륜경』 등의 설에 의거한다. 뒤는 삼전이 함께 계를 잃는다는 것이다. 종가의 의도는 처음의 해석을 취하여 바른 이해로 삼는다. 「표무표장」에서 말하듯이 그 계를 잃지 않는다는 문장이 많은 부분 도리에 옳다. 그러므로 비구계는 보살계와 같으며, 상전의 경우 계를 버리고, 중하전은 계를 잃지 않는다. 만약 태현사의 뜻에 의하면 두 번째 뜻을 취한다. 그러므로 투도 및 사음 등의 4중죄를 범하면 삼품의 마음을 묻지 않고 모두 계를 버리는 것이다.[52]

위는 기의 「표무표장」을 대담하게 주장만을 취의한 내용이다.[53] 첫째설은 상품과 중하품을 나누는 설, 둘째 설은 삼품 전체를 동일하게 해석하는 설인데, 보살과 비구를 구분하지 않는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표 4> 『종요초』의 해석

주장인	주장 내용
宗家	上纏失戒/中下不失捨
太賢	三纏共失戒

위의 해석처럼 종가의 해석과 금사인 태현의 해석은 다르다. 이 부분은 『계본종요』의 '또한 비구 삼품이 중죄를 범할 때 모두 청정한 계를 버린다. 보살은 반드시 상품전일 때만 버린다'[54]를 염두에 둔 견해일 텐데, 『종요초』의 태현 이해와는 달리 『계본종요』는 비구와 보살을 구분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요초』에서는 왜 태현이 두 번째 뜻을 취한다고 했을까. 이에 대한 견해는 에이손의 『보행문집(輔行文集)』에서 출발한다. 에이손은 위 『계본종요』의 문구에 전거를 들어 설명한 후에, 세주로써 '개인적으로 말한다. 금사(태현)은 둘째 뜻을 정의로 삼는다. 장가는 첫째 뜻을 정의로 삼는다. 지금은 우선 크게 뛰어남을 드러냈으니 마땅히 종가에 의거해야 할 것이다'[55]라고 하였다.

---

52) 『종요초』 "'犯重罪'者. 章有二解 初解 上纏失戒 中下不失 依瑜伽第四十幷十輪經等說 後解三纏共失戒也 由宗家意取初解爲正 章云其不失戒, 文多理正 故苾芻戒同菩薩戒 上纏捨戒, 中下不失戒也 若由今師意 取第二解也 故違犯婬盜等四重不問三品心皆捨戒也"(上30左)

53) 『大乘法苑義林章』 卷3(T45. 310c)을 참조 바람.

54) 『계본종요』 "又比丘三品犯重. 皆捨淨戒. 菩薩必由上品纏捨"(T45. 916a)

55) 『輔行文集』"故前解善(私曰. 今師第二義爲正. 章家以初解爲正. 今且顯大勝宜依宗家)"(T74. 69c)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25.137.52.*** | Accessed 2020/07/01 13:46(KST)

우선, 여기서 금사는 태현이고, 장가는 「표무표장」을 쓴 기이다. 그리고 종가는 에이손이 속한 집단 즉 일본 법상종이다. 에이손의 『보행문집』에서 『계본종요』의 이 부분에 문증을 통해 상당히 길게 해설하는데, 결론적으로 첫째, 둘째 견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보행문집』의 해석(T74.69a-69c)

주장인	비구	보살
章家	若起上纏犯根本罪卽便捨戒 中下纏犯其戒不捨	若起上纏犯根本罪卽便捨戒 中下纏犯其戒不捨
太賢	決定失戒	菩薩淨戒上纏犯失 非諸菩薩中下纏犯亦名爲失
宗家	첫째 설을 지지	첫째 설을 지지

에이손이 종가의 견해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지만, 각주 55)에서 보듯이 첫째설이 더 좋다는 진술을 통해 보았을 때 에이손은 첫째 설을 지지함을 알 수 있다. 이후 『습유초』에서 에이손의 견해를 답습한다.[56] 그런데, 그 다음의 『습의초』에서 혼란을 가중시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 '범중죄(犯重罪)'라 함은, 태현사의 뜻은 음욕 및 도둑질 등 4중을 범함에 따라 삼품심을 물을 것도 없이 다 계를 잃는다는 것이다. 만약 종가의에 따르면, 비구계와 보살계가 같이 상전에서 계를 잃고, 중하전에서는 잃지 않는다.[57]

라고 하고 있다. 이로써 『종요초』의 해석은 『습의초』에서 유래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위 문장은 '범중죄(犯重罪)'라는 표제어가 말해주듯이 기의 「표무표장」에 대한 해석

56) 『拾遺抄』 "又比丘戒*三品犯重等者 師云二十部小乘中依經量上座二部意 如是釋給也 四分誦立三纏不失義 經量上座存 三纏失戒義故 今文無論依經量上座意也 問大乘意聲聞戒必三品捨戒可得意也 答依今師意 大乘前比丘戒必三品失戒可得意也 其所以者 瑜伽說聲聞界五十三無簡云犯重事故 述菩薩戒第四十以三品分別故也 二乘根劣故三品犯重皆失戒 菩薩機報勝故 三品之中三纏失戒 中下不失也 問不依四分等依經量等如是釋成給意如何 答爲顯菩薩聲聞勝劣不同 依彼部意 如是述給也 若今師意瑜伽文 非諸菩薩○如諸芯篛 (文) 可破文 若依慈恩等意 如諸芯篛(文) 可訓也 菩薩聲聞同上纏失戒 中下不失得意給故也 表無表章雖有二師述 故 前解善(文) 菩薩聲聞一同義 歎正釋給故也 文集御注可見之 三纏失戒事如別抄 三句別抄之也" (37左-38右) * '戒'는 현행본에 없음. 최종남, 앞의 논문, 2018, p.66 참조 바람.

57) 『拾義抄』 "'犯重罪'者由今師意違犯婬盜等四重不問三品心皆捨戒也. 若由宗家意芯葥戒同菩薩戒上纏捨戒 中下不失也"(12左1-3行)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25.137.52.*** | Accessed 2020/07/01 13:46(KST)

이다. 즉, 『종요초』는 『습의초』로부터 「표무표장」을 해석하는 문구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표 4>처럼 '三纏共失戒'로 해석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습의초』에서 『계본종요』의 문구 '又比丘戒* 品犯重'를 해석할 때는 다음과 같이 설한다.

> '又比丘戒* 品犯重'등의 뜻은, 중죄를 범하고 연을 버리는 것[犯重捨緣]에 대해서 '보살계는 상전에서 계를 버리고, 중하전은 잃음이 없다. 성문계는 삼품전에서 모두 계를 잃는다. (여기서는 일설에 의거한다)[58]

라고 해석한다. 일견 태현의 취지를 전하는 듯한데, '일설[依一義意]'이라고 하여 태현사의 뜻이라고는 언명하지 않는다. 따라서 『종요초』에서는 『습의초』를 수용하여 <표 4>처럼 종가와 태현의 설을 확실하게 구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종요초』에서는 뒤에 가서 『계본종요』의 '범중'을 해석하게 되는데 이 때는 태현의 뜻을 올바로 해석한다.

> "이하는 중죄를 범하여 계를 버리는 것의 같지 않음을 밝혔다. 비구계는 삼전의 경우 모두 버린다. 보살계는 상전에서 계를 잃는다. 태현사의 뜻은 이와 같다. 그것에 덧붙여 비구계를 버림과 버리지 않음에 대해서는 자은, 남산, 청구의 세 승려의 뜻이 다르다. 남도의 율학자는 이 세 승려의 저술에 의지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다른 뜻이 능히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우선, 자은은 비구는 상품에서는 계를 잃고 중하품에서는 잃지 않는데, 보살도 마찬가지이다. 옛부터 두 승려(자은, 태현)가 함께 쟁론하였다. 『유가사지론』의 문장에 의하여 상전은 계를 잃기 때문에 이것은 부처님의 뜻을 올바로 이해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남산의 생각은 삼전 모두 계를 잃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분율』과 『십륜경』 등으로써 경증으로 삼기 때문에 대소승은 공히 삼전에도 계를 잃지 않는 것을 허용한다. 다음으로 『종요』의 주석자인 태현의 생각은 비구계는 삼전에서 계를 잃으며, 보살과 다르다."[59]

위 인용문에서는 태현사를 올바로 해석한 것도 있지만, 또 하나 『종요초』에서는 남

58) 『拾義抄』 "又比丘戒* 品犯重等意云 就犯重捨緣 菩薩戒 上纏捨戒 中下不失, 聲聞戒 三品纏具捨戒也 (中略)(且依一義意)" (13右左)

59) 『종요초』 "已下明犯重捨不同也 比丘戒於三纏捨 菩薩戒上纏失戒 此師意如此也 付之比丘戒捨不捨慈恩南山靑丘三師意異也 南都律學者 依憑此三師章疏故 此等異義 能能可存也 先慈恩 上纏失戒 中下不失 與菩薩同也 古來二師俱墮諍論 准瑜伽文 上纏失戒故 此正解佛意謂也 次南山意三纏不失戒義也 以四分律十輪經等爲證故 大小共許三纏不失戒 次要主意 比丘戒三纏失戒也 與菩薩異也"(上32右)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25.137.52.*** | Accessed 2020/07/01 13:46(KST)

선 도선, 대승 기, 태현의 세 설을 중심으로 남도의 율학이 발달했다는 사상사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계를 잃고 잃지 않는 것에 대한 해석은 자은과 태현의 경우 에이손의 진술과 같은데, 남산만큼은 다른 것으로 서술되었다. 태현에 대한 해석은 다음에도 또 언급된다. "즉, 태현사의 뜻은 제보살이 비구와 같지 않다고 훈점을 붙인다. 즉 성문과 대립되고 구별된다. 뜻은 성문은 삼전에서 함께 계를 잃고, 보살은 상전에서만 계를 잃고, 중하전에서는 계를 잃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비구와 같지 않은 것이다."[60] 이어 자은에 대한 해석도 위의 에이손의 해석을 답습한다.[61] 이처럼 태현에 대한 에이손의 해석이 정확한 듯하지만,[62] 『종요초』 자체 내에서 혼선을 빚는다. 이러한 오해는 태현이 장가 혹은 종가와의 대비를 통해 해석되면서 생긴 혼동이 계승된 것이다. 위의'유심'에 관한 해석처럼, 태현에 대한 해석이 시각 및 시대에 따라 변할 수 있음을 시사해주는 예이다.

Ⅳ. 맺음말

이상으로 『보살계본종요초』의 문헌적 의의와 태현 인식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태현의 『범망경고적기』와 『계본종요』의 주석서는 합하면 90종류에 달한다. 이름이 밝혀진 한국인 찬술 불교문헌 가운데 가장 많이 주석된 문헌이다. 본고는 『계본종요』의 주석서를 대상으로 태현의 보살계 사상이 어떻게 전승되고 이해되었는가 등을 고찰하였다.

현재 목록 등을 통해 알 수 있거나, 또는 사본 등을 통해 추정했을 때, 30여 종의 『보살계본종요』의 주석서 가운데 『보살계본종요초』라는 문헌은 독특한 위치를 차지한다. 첫째, 도봉의 서를 온전히 주석한 문헌 가운데 현존하는 대표 문헌이다. 둘째, 『종요초』의 서에는 본정방(本淨房)이 6번 언급되고 5번 비판된다. 그 외에도 본문에서는 태현과 자은, 의적, 종가(宗家=일본 법상종)과 비교하는 문구들이 있다. 본 문헌이 기존의 논의들에 대해 비판적, 논쟁적이라는 데서 태현의 『계본종교』의 주석사 상에서 사상적

60) 『종요초』 "若**今師意**非諸菩薩○ 如苾芻文點是則 與聲聞對簡也 意云聲聞三纏俱失戒 菩薩上纏失戒 中下纏不失戒也 故云非如諸苾芻也"(上34右)

61) 『종요초』 "若**慈恩**等意 如苾芻菩薩聲聞准例也 意云如聲聞上品失戒 中下不失 菩薩 准之可知也 爲言"(上34右)

62) 崔源植, 『新羅 菩薩戒思想史 硏究』, 서울: 민족사, 1999, p.203. 『梵網經古跡記』卷2 「然犯重戒略有二種. 一破, 二汚. 若以上品煩惱纏犯, 隨所犯支失戒律儀. 若中下纏唯汚不失.」(T40, 701a)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25.137.52.*** | Accessed 2020/07/01 13:46(KST)

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즉, 태현의 사상에 대한 인식 변화뿐 아니라, 제 사상가 가운데서의 태현에 대한 인식을 확인할 수 있는 문헌이다. 셋째, 본 문헌이 '초물(抄物)'이라는 점이다. 『계본종요』 가운데 『종요초』보다 빠른 '초물'이 있지만, 온전하게 남아 있으면서, 가장 빠른 문헌이 『종요초』일 것이다. '초물'이라는 문헌의 성격 상 이전의 주석서를 참조하여 그대로 필사하면서, 이후의 주석서에 영향을 주는 중간자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태현 주석서의 계보뿐 아니라 주석 사상의 흐름을 탐구할 수 있다.

『종요초』의 태현 인식에 대해서는 사상적 계보를 먼저 들 수 있다. 여기서 태현이 원측의 손제자, 도증의 손제자로 인식되는데, 특히 원측이 현장의 제일가는 제자이며, 그 흐름을 태현이 잇는다는 쇼온(照遠)의 『술적초』의 영향으로 이 『종요초』가 서술되었다. 태현에 대한 인식은 4가지 관점에서 해석의 상위를 고찰하였다. 용어 자체 문제인 '종요'에 대한 해석에서 『고적기』의 악행에 대해 훈계하는 것과 『계본종요』의 지범을 둘 다 수용하면서, 중국의 법장 설인 삼취계에 대해서는 무게를 두지는 않았다. 둘째, '유심'에 대해서 보리심(의적), 보통의 마음(태현)으로 보는 견해 차이를 소개하였다. 다만, 의적이든 태현이든 '유심'을 명확히 '보리심' 혹은 '정식'으로 명언하지는 않았다. 『종요초』에서 그렇게 해독한 것이다. 셋째, 태현과 자은과의 해석 차이도'성죄의 현행'을 둘러싸고 논해지는데, 중생 이익을 위한 보살의 살생이 허용되는 계위에 대해서, 자은은 초지 이상, 태현은 초지 이전으로 본 것이 논해졌다. 넷째, 종가와의 상위에 대해서도 언급된다. 여기서 종가는 중국 법상종에 근거를 둔 일본 법상종이다. '계율을 잃어버림'을 둘러싼 해석이 주제인데, 이 해석은 에이손의 『보행문집』이 발단이 되어 문제화되었다. 이후 『습유초』로 이어지는 해석과 달리, 『습의초』에서의 해석을 『종요초』가 수용하면서 해석 상 혼란을 빚는다. 즉 태현의 주장은 삼품에서 계를 다 잃는 것이라고 했지만, 『계본종요』의 문장 상으로는 맞지 않다. 뒤에 가서는 태현을 정당하게 해석하지만, 혼선을 해결하는 문구는 없다.

이상과 같이 태현의 『계본종요』의 주석서를 찾아서 고찰하는 작업은 일본 승려들의 태현에 대한 인식 변화를 찾는 작업임과 동시에 태현 사상의 확장성을 독해하는 한국불교연구의 일환이기도 하다. 향후 『계본종요』 주석서를 전부 모아 시대별로, 계통별로 해석 변화를 탐구할 필요성이 있다.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25.137.52.*** | Accessed 2020/07/01 13:46(KST)

〔참고문헌〕

1. 1차 자료

定泉,『梵網經古迹補忘抄』(日本大藏經 제37권)
定泉, 菩薩戒本宗要拾遺鈔(京都大寫本)
英心, 菩薩戒本宗要拾義鈔(京都大寫本)
仙祐, 菩薩戒本宗要抄(1647 간행본)

2. 단행본

蔡印幻,『韓國佛教戒律思想研究(Ⅰ)』, 토방, 1997.
石井公成,『華嚴思想の研究』, 東京: 春秋使, 1996.
神奈川縣立金澤文庫・東國大學校佛教文化研究院HK研究団共同特別展示會,『アンニョンハセヨ！元曉法師-日本からみつめた新羅・高麗仏教』, 横浜: 神奈川縣立金澤文庫, 2017.
身延文庫轉籍目錄編輯委員會,『身延文庫轉籍目錄: 中』, 山梨: 身延文庫, 2004.

3. 연구 논문

김천학,「한국찬술불교문헌의 확장성에 대한 일고찰- 태현의『보살계본종요』를 중심으로」,『書誌學研究』70, 2017.
최종남,「太賢의「菩薩戒本宗要」유통본 서지조사 및 대조・연구」,『서지학연구』74, 2018.
大谷由香,「太賢『梵網經古迹記』の日本における活用について」,『龍谷大學論集』492, 京都: 龍谷學會, 2018.
蓑輪 顯量,「第10章 覺盛と叡尊の戒犯意識の相違」,『中世初期南都戒律復興の研究』, 京都: 法藏館, 2000.

▌논문투고일 : 2020. 1. 8 ▌심사완료일 : 2020. 1. 25 ▌게재확정일 : 2020. 1. 29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25.137.52.*** | Accessed 2020/07/01 13:46(KST)

Abstract

Bosatsukaihonshuyo-sho's philological significance and recognition of Taehyŏn in Shilla

Kim, Cheon-hak*

This paper examines the philological significance of the *Bosatsukaihon-shuyosho*, which is interpreting the *Bosalkyebon-jonyo*, and the perception of Tae-hyŏn. The study of the commentary on the Tae-hyŏn writings is part of the study of Korean Buddhism, and furthermore, it is the process of rebirth of Silla Buddhism or Tae-hyŏn. The meaning of literature on *shuyosho* is summarized in three categories: First, it is a representative text existing among the literatures of completely commentary on the preface of the Chinese monk Taofeng. Second, it is important in the sense that it reflects the critical view of Sen-yu on the existing preface interpretation. Third, while accepting the interpretation tradition of the existing on *kyebon-jonygo*, Sen-yu had actively represented Tae-hyŏn's position and builded his own ideas. From this point, *shuyosho* is a very important document in that it can know the trend and development of the annotation about the *kyebon-jongyo* of Tae-hyŏn. On the other hand, Tae-hyŏn is recognized as the lineage of Wŏnchuk, Xianzhang's most famous disciple. Second, there is a side to deepen Tae-hyŏn's theory while accepting Wŏnhyo and Fazang's theory. Third, in the difference of each theory such as Ki in China and Uijŏk in Silla, *shuyosho* is based in Tae-hyŏn's theory. However, it should not be overlooked that it shows the tendency to prioritize the traditional theory of Japan hosso-school rather than Tae-hyŏn's theory.

Key words Bosatsukaihon-shuyosho, Tae-hyŏn, Bosalkyebon-jongyo, Wŏnchuk

* Academy of Buddhist Suduies, Professor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25.137.52.*** | Accessed 2020/07/01 13:46(KST)